LG 외국인선수 아이라 클라크가 30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벌어진 전자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이현민의 수비를 뚫고 골밑 슛을 시도하고 있다. 인천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벤슨 대신 클라크…LG 새 기둥 되다

24득점 14리바운드 승리 일등공신
전랜 9점차로 잡고 6강싸움 불지펴

오리온스, KCC전 87-73으로 승리

KB 국민카드 KBL 2012-2013 프로농구

전자랜드-LG전이 열린 30일 인천 삼산체육관의 경기 직전 이슈는 온통 모비스로 트레이드된 용병 로드 벤슨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째서 LG가 '헐값'에 특급 센터인 벤슨을 모비스로 넘겼느냐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LG 김진 감독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벤슨이 떠나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LG가 내년 신인드래프트를 위해 6강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진 못했다.

그렇다고 상대팀 전자랜드가 '이런 상황을 곱게 보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사실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은 벤슨 영입(트레이드)을 강력히 원했다. 그러나 카드가 맞지 않았다. 그런데 LG는 하필 벤슨을 전자랜드와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비스로, 그것도 용병 센터 커티스 위더스에 신인 지명권 1장을 얹어주는 조건에 넘겼다.

게다가 전자랜드로선 벤슨 없이 맞붙게 된 30일 LG전도 껄끄럽긴 매한가지였다. 전자랜드는 정통 센터인 벤슨보다 골밑에서 움직임이 다양한 LG 아이라 클라크를 더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랜드는 클라크를 막기 위해 힘이 있는 디앤젤로 카스토를 먼저 기용했으나, 수비 쪽에서 재미를 못 봤다. 리카르도 포웰을 교대로 써봤지만 포웰의 공격력마저 반감됐다.

"벤슨보다 클라크가 더 걱정"이라던 유감독의 우려대로 전자랜드는 이날 1쿼터부터 LG에 일방적으로 밀렸다. 클라크에게 1쿼터에만 9점·9리바운드를 내줬다. 전자랜드의 1쿼터 득점은 고작 11점이었다. 2쿼터 8분을 남기고는 13-24까지 뒤졌다. 벤슨 없이도 제공권의 우위를 확보한 LG는 2쿼터 버저비터까지 터지는 등 외곽 득점 속에서 전반을 42-30으로 마쳤다. 3쿼터 7분을 남기고는 16점차까지 리드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추격을 개시한 전자랜드는 용병 카스토와 가드 정병국이 뒷심을 발휘한 덕에 3쿼터를 54-60으로 마칠 수 있었다. 4쿼터 들어선 문태종과 포웰의 득점포가 터져 68-70까지 따라붙어 역전을 노렸다. 그러나 LG에는 클라크(24점·14리바운드)가 있었다. 또 박래훈은 4쿼터 2점차까지 쫓긴 승부처에서 연달아 3점슛 2방을 꽂았다. 86-77로 승리한 LG(16승 20패)는 2연패에서 벗어났다. 3위 전자랜드(21승14패)는 홈 6연패에 빠졌다.

한편 전주에선 오리온스가 KCC를 87-73으로 꺾었다.

인천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i21

■ 빙속여제 이상화 금의환향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세계기록 보유자 이상화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퍼펙트하게 마무리 소치서도 지금처럼"

비결은 훈련량…현실 안주하지 않겠다

"퍼펙트하게 마무리하고 온 것 같다."

'빙속 여제' 이상화(24·서울시청)가 '퍼펙트'라는 표현을 쓰며 남다른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귀국 기자회견에서 "주종목인 5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워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자랑스러워했지만, "내년 소치동계올림픽이 기다리고 있으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긴장의 고삐를 조였다.

이상화는 20~21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컵 6차대회 여자 500m에서 36초80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세계스피드스케이팅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펼쳐진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에선 1000m 1·2차 레이스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기록을 연거푸 경신했다. "퍼펙트한 마무리"라는 말처럼 완벽한 결과를 안고, 말 그대로 '금의환향'한 것이다. 이상화는 올 시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특별한 것은 없고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여름에 열심히 훈련한 대가도 기록으로 나타났다"며 "이규혁 오빠의 조언과 케빈 오벌랜드(캐나다) 코치의 지도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상화는 "500m는 0.1~0.2초 차이로 순위가 갈리고, 중국 선수(위징·왕베이싱)나 네덜란드 선수(티스예 오네마) 등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방심하면 안 된다"며 "월드컵 파이널(3월 8~10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3월 21~24일)에서 2연패하고 싶다. 좋은 성적에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 소치동계올림픽까지 지금의 페이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팀 슈라이버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 아웅산 수치 여사, 조이스 반다 말라위 대통령, 나경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 로레타 클레이본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이사(왼쪽부터)가 30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홀에서 글로벌 개발 서밋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창 | 연합뉴스

세계 지적장애인 권리보장 '평창선언' 한 목소리

나경원 위원장, 글로벌 개발 서밋 개최

'지적장애인들의 UN총회'인 글로벌 개발 서밋이 30일 강원도 평창에서 전 세계 2000만 장애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평창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와 나경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회의원 등 전 세계 지도자 300여명은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경청을 통한 변화'라는 내용의 평창선언을 채택했다. 평창선언은 구속력은 없으나 세계 각국이 지적장애인의 소외와 빈곤 등 현안에 대처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열린 글로벌 개발 서밋은 지적장애인들의 복지확대를 위한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고, 앞으로 열리는 대회에서 이런 정신을 확대·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나경원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돼 김 총리의 환영사와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비디오 메시지로 서밋 개최의 의의를 선포한 뒤, 팀 슈라이버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이 주제를 소개했다. 뒤이어 아웅산 수치 여사, 무타르 켄트 코카콜라 대표 등이 기조연설을 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적장애인들도 우리들와 같이 행복한 삶을 원하고 꿈을 가지고 있다. 딸 윤아가 결혼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을 때 가슴이 아팠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딸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진정으로 딸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됐다. 우리는 이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그늘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에게 일방적 도움을 주기보다 스스로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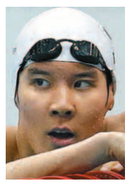
박태환 포상금 일방적 미지급…괘씸죄?

〈런던올림픽 은메달 2개·5000만원〉

수영연맹 "행사 불참 등 책임태만"

대한수영연맹이 박태환(24·단국대대학원·사진)의 2012런던올림픽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수영연맹은 30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임기 4년)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기흥(58·우성산업개발 대표이사)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선 2012년도 정기 자체감사 결과보고가 눈길을 끌었다. 서정일(전북수영연맹 회장) 감사는 박태환의 런던올림픽 포상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이사회(이달 초)에서 결의된 사항이라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포상금 지급에 최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수영연맹 포상규정에 따르면, 총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박태환의 포상금은 다이빙 꿈나무들의 유학비용으로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태환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전용'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박태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꿈나무를 대상으로 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런던에서도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대표선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교육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체육계 한 관계자는 "박태환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혹시 박태환을 나무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와의 포상금 약속은 정확히 지키고 훈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박태환은 2008베이징올림픽 당시 수영연맹으로부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전담팀 관계자들에게 5000만원씩 전달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2013 국민체력100사업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0일 체육과학연구원에서 거점체력센터로 확정된 14개 지자체 및 운영기관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국민체력100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체력100사업은 과학적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100세 시대 국민체력관리 프로젝트'다. 지난해 전국 4개소의 거점체력센터에서 시행됐으나, 올해는 전국 14개소로 확대해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대한테니스협회장에 주원홍 전 감독

주원홍(57·사진) 전 삼성증권 감독이 제26대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주원홍 신임 회장은 30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총 투표수 19표 중 11표를 얻어 당선됐다. 테니스협회장 선거에는 주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주 회장은 한국 남녀테니스의 간판으로 2000년대까지 활약한 이형택(37)과 조윤정(34)을 키워낸 경기인 출신이다.

"체육인 출신이 나설 때가 됐다"

이에리사, 대한체육회 회장 출마

태릉선수촌장을 지낸 이에리사(59·사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대한체육회(KOC)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30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화하는 체육회, 한발 더 전진하는 체육회를 위해 아름다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며 "그동안 경제인, 정치인 출신들이 체육회를 이끌면서 큰 힘이 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체육인 출신이 나설 때가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당선인과 사전교감을 나눴느냐는 질문에 "교감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한 뒤 "선수촌장 때 열심히 일한 결과로 체육계 선후배들이 많은 힘과 격려를 주셨다. 고민의 시간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체육회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역시절 '사라예보의 탁구여왕'으로 불린 이 의원은 탁구국가대표 감독, 용인대 교수, 태릉선수촌장, KOC 선수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뒤 지난해 4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KOC 회장 선거는 다음달 3~7일 후보등록에 이어 22일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로 치러진다. 박용성 현 회장과 박상하 국제정구연맹 회장도 곧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